

## 청년들과의 공감 형성

캐서린 모라로, 재속 프란치스코회 청년 위원회장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에서 “하느님의 영은 온 우주를 가능성으로 채우시기에 모든 것의 중심에서 항상 새로운 것이 드러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의 경우 “새로운 것”은 청년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복음적 삶을 살도록 이끌어 그들의 성화로의 여정을 돕는 것이겠지요 (회칙 24 조).

국가 청년위원회는 여러분께 동기를 드리고 돕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협조를 기대하시지만, 우리는 어려운 선택과 장애물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인 우리에게는 그토록 원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 여러 소중한 유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에 자극받아 아름다운 삶을 사신 사부님과 클라라 성녀의 모범이 있습니다. 최근 피정에서 작은 형제회 래리 그로센 신부님은 무엇이 자신을 1 회에 이끌었는지를 나누시면서, 사부님의 진정성, 겸손, 기쁨, 복음에 대한 사랑, 그분의 인간성, 가톨릭 교회에 대한 충성, 피조물을 포함한 모든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청년들과의 관계에 있어 프란치스코인으로 닮고자 하는 덕목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함으로서 프란치스코 카리스마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회칙이 있습니다. 국가형제회 올해의 구호인 “쇄신과 확인: 보물의 생활화”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회칙 40 조를 기념하며 선택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 세께서 1982 년 재속 프란치스코회 국제형제회 총회에서 우리 회칙은 “여러분 손에 있는 확실한 보물”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축하해야 겠습니다.

회칙 시작에 있는 네 가족 수도회 총봉사자들 서한에 “희망적인 쇄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그에게서 영감과 안내를 받았던 회개의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체험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쇄신이 언급되지요.

노력을 재충전하기 위해서 하나되어, 불붙이고, 초대해야 합니다.

단결:청년위원회는 우리가 한 국가로서 하나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어떤 방법으로든 젊은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노력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되기:나환자를 포용하기 위하여 성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영혼 바닥에서부터 용기를 끌어내어야 했고 그 결과“전에는 쓴것이 단것”이 되었습니다.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불을 지피고 계십니다.우리 모두가 첫 걸음을 던져 우리 안에 있는 불을 나누어야 합니다.

초대하기:청년들이 우리가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를 살고자 하는 단순한 사람임을 경험하면,그들은 더 원하게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그들에게 초대가 될 것이고,청년들은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매력을 느낄 것 입니다.

우리의 “보물”을 어디든 지니고 다닙시다, 특히 청년들과 일할 때는.새로워지고 따름으로 이 선물이 하나되고 불붙이고 초대하는 길이 되게 합시다.